

카드뉴스 14호

# 5.18 민주화 운동

우송대학교 인권센터



이미지 자료: 영화 「택시운전사」

## 택시운전사 (2017)

영화 「택시운전사」는 피해자나 가해자의 시선이 아닌, 서울 택시운전사와 독일기자라는 제 3자의 눈으로 5.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보여준다.

그렇다면 당시 광주의 상황은 어땠을까?

## 05.18 민주화 운동

1980년, 전국의 대학생들은 전두환을 필두로 한 신군부 세력을 거부하는 시위를 벌였다.

이에 전두환 정권은 본보기로 **광주에서 가장 잔인한 진압작전**을 펼쳤다.



5.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과 대치중인 시민들 사진  
이미지 자료: 5.18기념재단 공식블로그

“

시민 여러분! 지금 계엄군이 쳐들어오고 있습니다.  
사랑하는 우리 형제, 우리 자매들이 계엄군의 총칼에 숨겨가고 있습니다.  
우리 모두 계엄군과 끝까지 싸웁시다.  
우리는 광주를 사수할 것입니다, 우리는 최후까지 싸울 것입니다.  
우리를 잊지 말아주십시오!

”

도청 옥상에 설치된 대형 스피커를 통해 광주에 울려 퍼진 박영순의 최후의 방송



출처:KBS,민주화운동재단,편집:'아이엠피'

북괴『선동』광분 여전

80년 5월27일 KBS9시 뉴스

따라서 군은 생활고와  
온갖위협에 시달리는 시민  
구출위해 군병력을 광주에 투입

**피 흘리는 부부와 계엄군 중 누가 시민을 위협했는가?**

## 그날의 영상

광주 시민들은 계엄군과 맞섰지만, 결국 5.27일 계엄군에게 진압당했다. 이후, 5.18 민주화운동은 사실을 왜곡하려던 당시의 정부와 언론들은 오랜세월동안 '북한공작원으로 인한 폭동'으로 매도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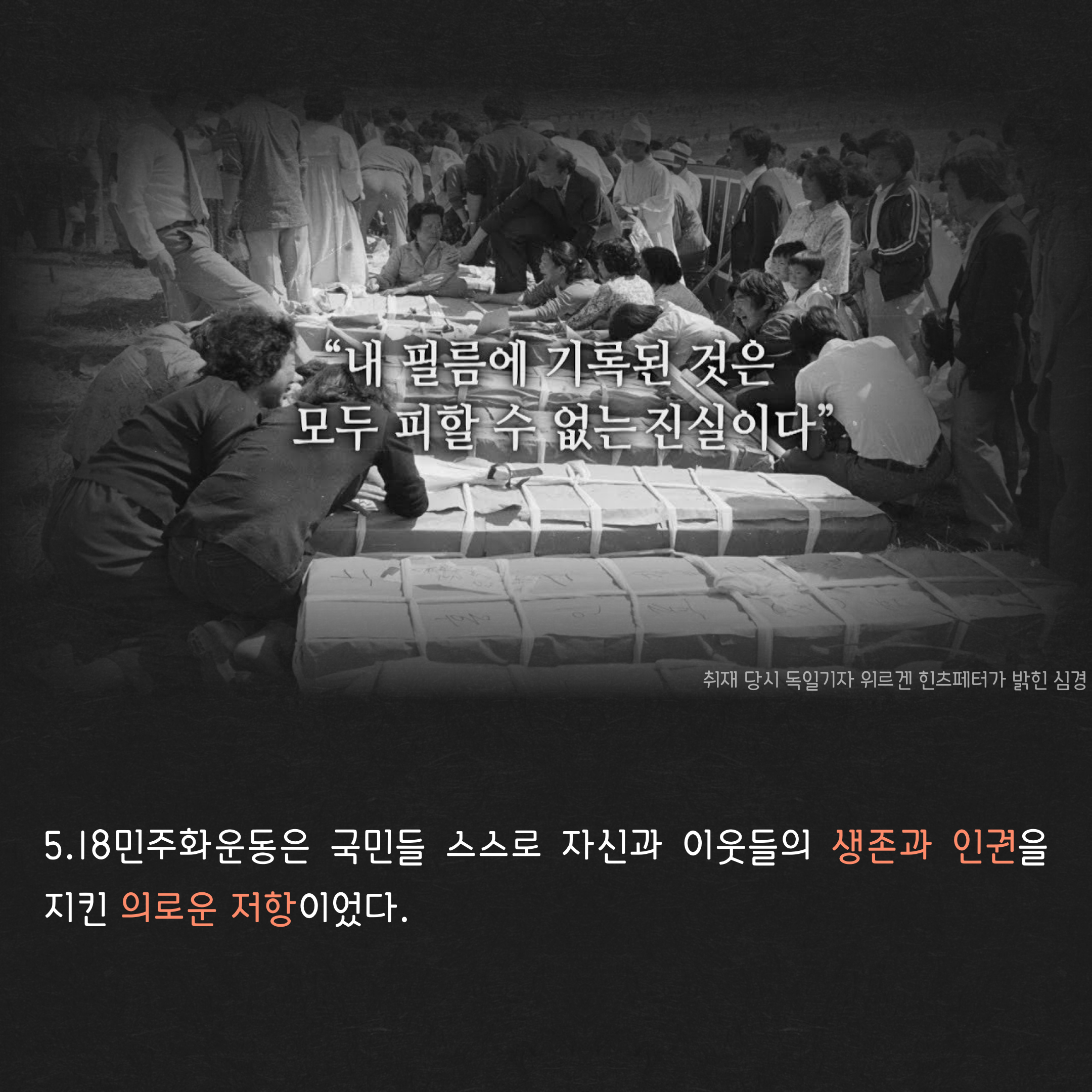
독일기자 위르겐 힌츠페터가 찍은 영상 속 군부는 시민들을 상대로 폭행을 비롯하여 총을 발포하였고, 이로인한 사상자들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담겨있었다. 영상 속 **그들에게 민주주의와 인권이란 찾아볼 수가 없었다.**





5.18 가해자 중 하나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아들 노재현이 국립5.18민주묘지에 찾아와 참배하고 사과하는 모습

현재는 5.18민주화운동을 숭고한 '항쟁'으로 인정하고, 특수폭도로 몰렸던 생존자들은 늦게나마 무죄 판결을 받았으며, 많은 관계자들이 국립 5.18민주묘지에 찾아와 사과를 하는 등 그날의 진실을 밝히고 있다.



“내 필름에 기록된 것은  
모두 피할 수 없는 진실이다”

취재 당시 독일기자 위르겐 힌츠페터가 밝힌 심경

5.18민주화운동은 국민들 스스로 자신과 이웃들의 **생존과 인권을**  
지킨 **의로운 저항**이었다.